

<b>2026년 7월, 출범 확정</b> <b>제물포구·영종구</b> <b>서구·검단구</b>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이제는 인천입니다 <b>2025 APEC INCHEON</b>	
배포일자		2024년 5월 2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 당 자	• 유물관리부장    배성수 ☎440-6741 • 담당자            김성이 ☎440-674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립박물관, 개항의 역사 품은 ‘맨홀 뚜껑’ 유물로 소장하기로**  
 - 1921~45년경 중구 신포동에 설치 ... 80~100여 년 된 것으로 추정 -  
 - 보존처리 거쳐 시민들에게 근현대 도시사 자료로 공개 예정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학술·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근현대 생활 문화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설치된 ‘인천부 맨홀 뚜껑’을 발견해 박물관 유물로 소장한다고 밝혔다.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하면서 도로에 철로 된 뚜껑이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철로 된 뚜껑, 일명 맨홀 뚜껑은 과거의 다양한 도시계획 유산으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도시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중구 신포동에서 발견된 ‘인천부 맨홀 뚜껑’은 근대 개항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던 인천의 역사를 알 수 있어 근대 도시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뚜껑에 새겨진 ‘인천부’ 휘장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부터 1945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인천의 ‘인(仁)’자를 동심원과 꽃무늬로 장식한 것이다.

휘장의 사용연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발견된 ‘인천부 맨홀 뚜껑’은 최소 80년부터 10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맨홀 뚜껑이 종종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인천에도 근대 도시 계획의 증거인 인천부를 상징하는 마크가 들어간 맨홀 뚜껑이 발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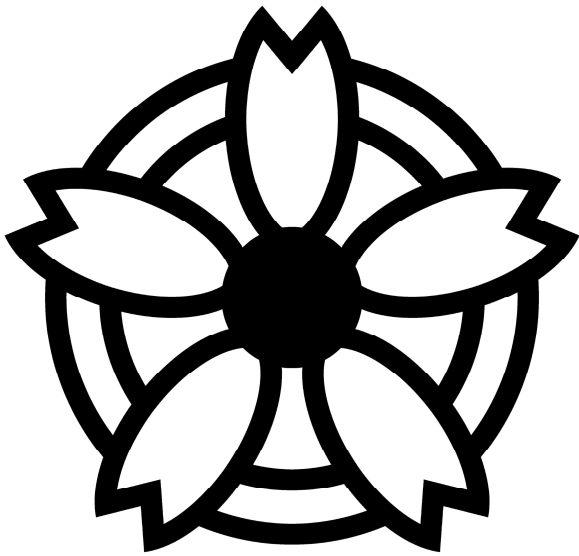
발견된 맨홀 뚜껑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 관할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할 맨홀 뚜껑을 제작해 설치하고 기존의 맨홀 뚜껑은 시립박물관 유물로 수집하게 됐다.

‘인천부 맨홀 뚜껑’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근현대 도시사 자료로서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앞으로도 소장유물 확충을 위해 우리 주변의 역사 문화유산을 자세히 살피는 등 인천의 역사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인천부 휘장 세부 내용

- 사용시기 : 일제강점기 1921년~1945년 광복때까지 사용
- 휘장 의미 : 인천의 인(仁) 자를 기반으로 하여 동심원과 꽃무늬로 장식.



## 붙임 2. 인천부 맨홀 뚜껑 및 조사 사진

